인도-중국 '불교 적통자' 자리 두고 신경전

中 "신장위구르 지역 불교순례길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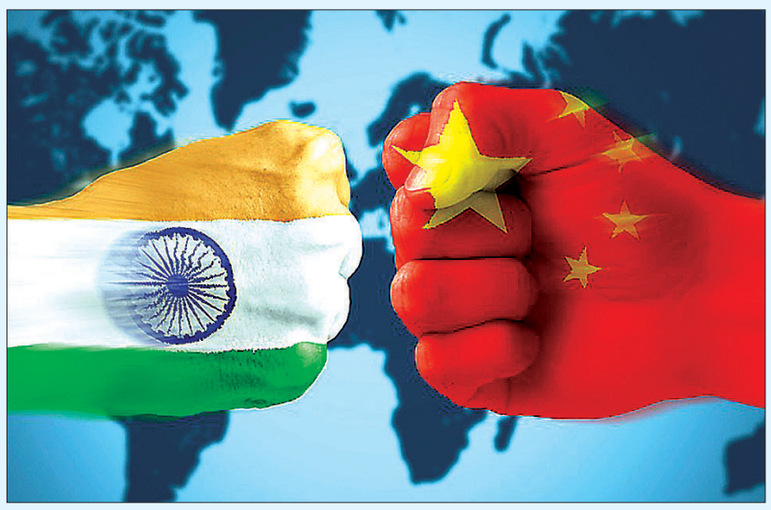
인도 정부가 2006년 날란다대학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불교를 활용한 문화외교에 적극 뛰어든 가운데, 막대한 재정으로 '불교 전통국'임을 홍보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도 영자지 'INDIAN EXPRESS'는 1월 15일(현지시간) "인도 문화부·고고학발굴단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불교 유적 순례길을 개발하면서 행로에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포함하자 중국 당국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으로, 중국 측은 불교 순례길에 해당 지역이 포함될 경우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장 로케쉬 찬드라 박사는 "순례길은 불교가 전래된 길을 좇아 인도, 중국, 미얀마 등 여러 국가를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다. 현재 중국 측의 반발로 계획은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찬드라 박사는 "중국은 현재 보관중인 1,000개가 넘는 불교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해석해줄 인도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양국이 순례길 문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印·中 불교문화외교전 '팽팽'
인도불교순례길 신장성 포함되자
中 당국 "지역 무슬림 자극말라"
인도정부는 협상 의지 열어놔


최근 인도 당국이 개발하는 불교순례길에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포함되자 중국 정부가 "순례길 프로젝트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FXANDGEOPOLITIX

이에 대해 'INDIAN EXPRESS'는 중국 사정당국이 해당 지역 무슬림들의 동요를 우려해 순례길을 거부했지만 이는 표면상 이유일 뿐, 불교문화 전통국 자리를 둔 팽팽한 신경전이라 해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룸비니에 불교대학을 짓는 등 네팔과 꾸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세계불교포럼을 후원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불교 적통자'임을 홍보해 왔다.

나린다 쿠마르 싱하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은 불교 전래지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단 사실을 인정했다.

"많은 불교 전래국들이 불교를 독점하고 자기들 고유의 문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부처님 탄생지로서, 중국은 탄생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였단 이유로 적통자임을 주장합니다."

나린다 장관은 인도 주요 불교성지를 부정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에 대해 "인도 불교문화의 원래 명성과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길 바란다"며 "바나라시부터 신장위구르 지역까지 이어지는 인도 불교 순례길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동서 교통로의 요지로 파미르 고원을 넘기 전에 채비·거래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당나라 고승 현장(玄) 스님은 카슈가르를 지나며 "농업이 성하고 직물업이 발달하였으며, 문자는 인도 문자를 모본(模本)으로 한다. 불교를 신봉하는데 승려는 1만여 명이고 사찰은 수백 개소에 달한다"고 기술해 인도 불교 문화가 융성했음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 신장성(省) 지역으로 1884년 카슈가르를 포함한 현 신장(新疆) 지역이 청의 직접지배에 편입되며 인도 정부의 지배권은 소멸됐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물 빠진 저수지서 600년 불상 '깜짝 등장'


중국 장시성 홍문저수지서 발견된 명나라 제작 추정 불상. 사진출처=ibtime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월 15일(현지시간) 장시성 난청현에 위치한 홍문저수지서 벽에 조각된 불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 중인 수력발전 공사로 저수지 물이 빠지면서 3.8m 길이의 이 불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

중국은 불상이 명나라(1368~ 1644) 전후 제작된 것으로, 저수지 아래에 절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쉬창칭 장시성 유물연구소장은 CNN과 인터뷰서 "명나라 초기 혹은 그 전 시대인 원나라 때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 속에 오래 잠겨있었기 때문에 날씨와 산화 등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네바다주민 하나로 모은 '진리의 밥상'

레노불교센터, 자발적 지불제·봉사활동으로 카페 운영

불교설화 〈본생경〉 속 배고픈 사냥꾼을 위해 소신공양한 토끼 이야기가 미국의 한 카페 설립의 바탕이 됐다. 카페는 배고픈 지역주민들을 위해 식사공양 봉사를 펼치며 지역 내 명소가 됐다.

네바다주 공공라디오방송국 'KUNR'는 1월 12일(현지시간) 레노시 플루마스 거리에 위치한 '레노불교센터'가 운영하는 '달토끼 카페(Moon Rabbit Cafe)'를 방문, 수도승 겸 공동설립자 피셔 부부와 마을 주민들이 음식공양을 베풀며 화합하는 현장을 보도했다.

특히 "타인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등 주민들의 이타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셸리·매튜 피셔 부부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고민하다 지난 2015년 1월 31일 달토끼 카페를 개시, 수익금 중 일부를 2달에 1번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쓰고 있다.

"배고픈 사냥꾼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토끼를 다룬 〈본생경〉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시행을 펼친 토끼와 이에 감동받은 인도신이 보름달에 토끼 모양을 새겼단 이야기를 해줬더니 매우 감동하더군요. 우리 카페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레노불교센터'가 운영하는 '달토끼 카페(Moon Rabbit Cafe)'는 지난 2015년 1월 31일부터 2달에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사진출처=KUNR

달토끼 카페는 자발적 지불제(pay-what-you-can)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사값 5달러(한화 약 5,800원) 혹은 그 이상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며, 초과된 금액은 가난한 주민들의 식사값으로 사용된다. 카페 측은 자발적 지불제 덕분에 "돈 없는 주민들을 한 번도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부는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지역사회 단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민들이 주방장·서버로 나서는 등 불교 이타적·공동체 지향적 가치 아래 주민들이 화합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카페서 총괄주방장을 맡고 있는 제이모다 씨는 레노 시내 지중해 음식점 '슈와르마게돈'의 주방장이지만 2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

모다 씨는 "달토끼 카페는 주방장 소임자를 자유롭게 모집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주방장들의 음식 솜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곳서 봉사활동 하는 날은 서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처음에 주방 일에 익숙하지 않은 봉사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어느새 능숙히 일을 해낸다"고 설명했다.

카페 이용자 겸 봉사자 캐시 매스트란투오노 씨는 "카페 운영방식이나 설립목표를 듣고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에 망설임 없이 카페 일을 돕고 있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살면서 주어진 임무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토끼 카페는 "참석자들이 꼭 불자일 필요는 없다. 오직 고픈 배와 이타심이 참석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음식 나눔은 2달에 한 번 레노불교센터 1층 로비서 진행되며, 매번 쿠바·인도·독일·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다양한 지역 음식을 대접한다.

이승희 기자

'불교괴짜들' 문 닫고 새단장 사이트 개설

"불교의 틀 밖에서 명상 전파 할 것"


'불교괴짜들' 설립자 빈센트 호른(사진 왼쪽)과 에밀리 호른.

10년간 불교를 주제로 진행해 인기를 끈 팟캐스트 '불교괴짜들(Buddhist Geeks)'이 문을 닫고 새 단장한 사이트를 개설했다.

'불교괴짜들'의 설립자인 빈센트 호른과 에밀리 호른은 "지난해 12월 불교괴짜들 팟캐스트를 중단하고 사이트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밀리 호른은 "불교괴짜들은 마지막 에피소드를 진행한 후 폐쇄할 계획이다. 불교괴짜들의 자료들은 유튜브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괴짜들'은 기술발전과 철학, 교육,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문화 현상과 불교가 서로 교차하는 측면에서 분야별 프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다. 2006년에 설립돼 10년간 수백 건의 팟캐스트를 생산했으며, 1,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 활동과 함께 안거수행(리트릿)과 연례 컨퍼런스도 개최해왔다.

빈센트와 에밀리는 '불교괴짜들'을 확장시켜 'meditate.io'라는 온라인 명상 플랫폼을 개설, 불교보다 명상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사이트에서는 '명상지도'를 마련해 사용자가 마음챙김명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느끼는 과정을 워크북에 기록해 점검받고, 인터넷망에서 명상 그룹에 속해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editate.io'도 '불교괴짜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에밀리 호른은 "우리는 수년간 불교와 명상을 지도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불교의 틀 밖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싶었고, 이번 'meditate.io'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